

[기획] >> 5면

총학생회장단을 만나다

[특별기획] >> 6-7면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회문화] >> 8면

영화 '기생충' 관광코스 논란

[인물] >> 12면

임형준 UN 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장을 만나다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과연 우리는 안전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고 이번 달 5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5천여 명을 돌파했다. 정부는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격상시켜 국민의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학교의 개강도 미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그에 대한 대처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6면에서 계속

조하영 기자 99young@hufs.ac.kr
이준성 기자 100lees@hufs.ac.kr

최완진 우리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 수상

지난달 20일, 최완진 우리학교 로스쿨 명예교수(이하 최 교수)가 대한중재인협회(이하 중재인 협회)에서 주관하는 제11회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을 수상했다. 법무법인 세창의 대표 변호사인 최 교수는 대한상사중재위원과 런던국제중재재판소에서 중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 교수는 150여 편의 논문과 33편의 저서를 출간했으며 대표 저서는 '상법학강의'와 '기업지배구조법'이다. 한국상사법학회장과 경영법률학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최 교수는 학문적·실무적으로 두루 활약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미 한국상사법학회의 무애학술상과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최완진 우리학교 로스쿨 명예교수
(출처: 법률신문 뉴스)

최근 최 교수는 법률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재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 짓는 것이 국민의 이익이 된다"며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중재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최 교수는 "중재인과 판정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중재의 핵심이다"고 강조했

다. 또한 "외국인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를 수용해 중재인의 연고가 판정에 영향을 끼치는 문화를 타파하고 중재 판결의 엄격성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한편 중재인협회는 △법조계△학계△실업계 종사자 중 중재 제도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1명씩 선정해 중재인 대상을 수여한다. 이번 중재인 대상 시상식은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상사중재원) 중재교육원에서 열렸다. 상장과 부상은 이기수 중재인협회장과 이

이준성 기자 100lees@hufs.ac.kr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이커머스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돼

이번 해 1월 29일, 롯데호텔에서 이커머스 특성화 대학 협약서 체결식이 진행됐다. 우리학교는 글로벌캠퍼스가 이커머스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돼 △조기성 글로벌캠퍼스 부총장△전종근 GBT학부 교수△이정 교수가 참석했다. 이커머스 특성화 대학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이번 해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1년간 총 350명의 전자상거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이 사업엔 우리학교를 포함해 △경남과학기술대학교△고려대학교△배재대학교△숭실대학교 등 총 7개 대학이 선정됐다. 올해 우리학교는 이커머스 수업으로 '글로벌전자상거래실습'을 GBT학부 정규과정으로 편성했다. 해당 수업은 학기 당 총 3학점이며 △글로벌플랫폼△SNS교육△온라인 수출 전문기업-재학생 매칭 판매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전자상거래 실무 전문가들의 특강 위주로 진행되는 해당 수업엔 다양한 실습과정이 포함됐다. 수강생들은 아마존과 같은 세계적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수출 및 마케팅 실습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학기엔 전자상거래 회사인 '제피로'가 참여해 여름방학 중 단기 실습을 진행한다. 실습 참여자는 제피로의 도움을 받아 실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다양한 국가로의 수출을 체험하고 2학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편 24명이 정원인 1학기 참여 학생 선발엔 총 98명이 신청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강의 계획서에 따르면 조별활동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5인으로 이뤄진 팀으로 지원할 경우 선발에 유리하다. 하지만 5인 팀 구성이 어려운 경우 개별 지원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2학기 선발 인원 역시 1학기와 동일한 25명으로 참여 학생 선발 모집 공지는 6월 중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단, 1학기 참여 학생 선발과 같이 지원자가 많은 경우 자기소개서의 내용에 따라 참가자를 선발한다.

이서미 기자 99seomi@hufs.ac.kr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남양주

우리학교 송도캠퍼스 1단계 개발공사 준공식 열려

지난달 10일, 우리학교 송도캠퍼스에서 외대국제교육센터 1단계 개발공사 준공식이 개최됐다. 이번 준공식은 관선주 행정지원처장(이하 관 행지처장)의 사회로 △개식사△사업개요·경과보고△내외귀빈 소개△이사장 인사말△총장 인사말△축사△감사패 증정△테이프 커팅△사진 촬영△폐식사 순으로 진행됐다. 관 행지처장은 “우리학교 교육센터는 송도부지 전체 대지면적의 약 20%를 차지하며 △행정실△전시실△강당을 비롯한 다수의 강의실과 풋살경기장과 주차장 같은 시설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해당 행사엔 △우리학교 김종철 이사장△우리학교 김인철 총장(이하 김 총장)△이정미 국회의원△민경욱 국회의원△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양 캠퍼스 학생회장을 비롯한 총학생회 등이 참석했다.

김 총장은 △첨단△의료△바이오 산업의 중점지역인 송도 국제도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글로벌 의공학 바이오 기관과 인접해 있음을 언급하며, 이에 우리학교 바이오메



▲준공식 테이프 커팅하는 모습

디컬엔지니어링학과(BME학과)와의 협력을 통해 발생할 시너지효과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표했다. 또한 김총장은 준공에 도움을 준 많은 교직원과 관계자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밖에 이정미(사회·미디어 84) 국회의원은 “우리학교 84학번 동문으로 축사를 하게 돼 기쁘다”며 “우리학교 학생들이 이번에 새로 준공되는 송도캠퍼스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키워 세계를 이끄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우리학교 송도캠퍼스는 이번 1단계 공사를 시작으로 총 3단계에 걸쳐 준공될 예정이다.

이서미 기자 seomi99@hufs.ac.kr

유은혜 사회부총리 우리학교 코로나19 대응 상황 점검 나서

지난달 1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하 유 총리)이 코로나19 대응 상황 점검을 위해 우리학교를 방문했다. 유 총리는 이문 107에서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양 캠퍼스 학생회장△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상황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어 국제학사에서 우리학교 코로나19 대응현황보고가 이뤄졌으며 이후 내부 점검이 시행됐다.

이날 김인철 총장(이하 김총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번 달 1일까지 인천공항에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을 대비해 ‘헬프데스크(귀고 지원 센터)’를 운영한다”고 공지했다. 하루에 공항에서 학교까지 오는 버스가 총 4번 운행되며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은 보다 안전하게 학교로 이동할 수 있다. 동시에 코로나19 예방수칙 관련 안내 동영상상을 중국어와 영어로 제작해 이메일로 개별 발송할 예정임을 밝혔다.

중국인 유학생 최강(대학원생)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중국인 입국 금지에 7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동시에 “유 총리가



▲간담회에 참석한 유은혜 장관과 김인철 총장

“중국인 유학생도 모두 우리 학생”이라 한 것에 감동했다”고 하며 이어 중국인 유학생들이 입국한 후 2주간 머물 거처 마련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유 총리는 대학들이 현재 중국인 유학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지금부터의 대응이 더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개강 연기△휴학 권고 △기숙사 입소조치 등이 갈등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나현 서울캠퍼스 학생회장(프랑스·서양어·15)은 “학교 측에 일부 학생이 차별을 받거나 배제당하는 느낌을 받을만한 말을 고쳐달란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대해 학교 측도 동의했음을 전달했다.

한편 우리학교는 기숙사를 신청한 100여 명의 학생 중 중국방문 학생을 별도로 수용할 공간을 마련했으며 이곳엔 대응 전담팀이 상주할 예정이다. 또한 김총장을 위원장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학생·학교 여러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서미 기자 99seomi@hufs.ac.kr

김은경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명돼

이번 달 4일, 김은경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하 김 교수)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에 임명됐다. 해당 직책은 금감원의 부원장급으로, 이 자리에 여성이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김 교수의 임명은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관리뿐만 아니라 여성인재 발굴과 균형인사에도 기여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금감원은 “김 교수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위원△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보험산업 감독혁신 TF 활동 경력이 있어 업무 관련 이해도가 높을 것이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지난 1월, 금감원은 조직개편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개편으로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감독△검사△

분쟁조정 등 이전보다 확대된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김 교수는 4명의 금감원 부원장 중 가장 중요한 보직을 맡게 됐다. 임기는 이번 달 9일부터 2023년 3월 8일까지 3년간이다.

김 교수는 우리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2006년 3월,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부임했다. 이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국토교통부 채권정리위원회△법무부 정책연구심의위원회△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외에도 2018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금융위원회 옴부즈맨△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사를 한 바 있다.

허지나 부장 99_jina@hufs.ac.kr

우리학교 이문일공칠 공연홀에서 DIPMX 미니콘서트 열려

이번 해 1월 15일, 이문일공칠 공연홀에서 우리학교 글로벌 홀 기숙사와 남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이하 남예종)가 공동 주관하는 ‘DIPMX 미니콘서트’가 열렸다. 콘서트는 오후 12시 30분에 시작해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서울특별시와 동대문구청이 후원한 이번 공연은 글로벌 홀 기숙사생을 비롯한 우리학교 학생과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됐다. 우리학교 글로벌 홀 운영팀은 “겨울 계절학기 중간고사가 끝나는 당일이라 생각보다 많은 학생이 참여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글로벌 홀 입사생 문화생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이문일공칠과 함께 글로벌 홀 입사생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연을 지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DIPMX는 케이팝(K-pop)을 통해 세계에 한국 문화의 우수함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루마니아, 태국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 공연을 펼치며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엔 월드스타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케이팝 보이 그룹상을 수상했다. DIPMX란 그룹명은 외교관을 뜻하는 영어 ‘diplomat’의 약자다. DIPMX의 리더 앨런 씨는 “DIPMX는 주로 해외 공연을 많이 하는 그룹”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외대에 재학 중인 친구가 있어 즐거운 공연이 됐으며 다음에도 이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고 소감을 드러냈다.

이서미 기자 99seomi@hufs.ac.kr

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

WON하는대로
우리 WON뱅킹

5

WON

WON이 전하는
5개의 새로운 메세지

WON통장

WON예금

WON적금

WON신용대출

모이면 금리가 올라가는 예금

2020년 WON하는대로
예금 EVENT

- 대상 : 이벤트 기간 중 이벤트 대상 예금(2종) 중 1개 이상 우리 WON뱅킹에서 가입한 고객
- 대상 상품 : 우리 WON예금, 모이면 금리가 올라가는 예금
- 경품 : 골드바 3.75g(10명) / 배스킨라빈스 쿠키터(1,005명) / 스타벅스 커피쿠폰(1,005명)

이벤트 기간 : 2020.1.15 ~ 2020.3.31

이벤트 대상 : 2020.1.15 ~ 2020.3.31

이벤트 대상 : 2020.1.15 ~ 2020.3.31

이벤트 대상 : 2020.1.15 ~ 2020.3.31

이벤트 대상 : 2020.1.15 ~ 2020.3.31

우리WON뱅킹
다들 못드러하기

우리학교 회계감사, 그 진실은?

지난달 3일, 교육부는 △우리학교△숙명여자대학교△삼육보건대학교△가야대학교의 회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 우리학교와 학교법인 동원육영회가 지적받은 부분은 교비회계 13건과 법인회계 5건으로 총 18건이다. 일부 언론은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이를 접한 양 캠퍼스 총학생회는 이후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에 우리학교는 해당 논란을 해명하고 향후 취할 조치에 대해 알렸다.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교육부 회계감사 결과

지난해 교육부는 10일간 우리학교와 동원육영회의 2016년 3월 이후 회계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법인부담 소송비 교비회계 집행△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미허가 BTO* 사업 추진△미허가 영리업무 종사 등 18건이 지적됐다. 첫 번째로 A 보직교수가 1억4440만 원 상당의 식대와 골프장 이용료 등을 △집행목적△일시△장소 기재 없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행위가 문제가 됐다. 지난해 우리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따르면 모든 지출에 경조사를 제외한 △집행목적△일시△장소가 기재된 것이 확인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A 보직교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서 위와 같은 필수 기재 사항 미비와 업무 관련성 불충분을 지적하고 정산 및 시정을 요구했다. 두 번째로 △교무위원△교직원 △학과장에게 △유류비**△회의비△활동비 등 규정에 없는 수당을 교비로 지급한 사항을 지적했다. 우리학교 전차규정집 보수규정 제4조에 의하면 교직원은 그 자격과 경력에 따라 사정된 호급의 기본급여와 연구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유류비△회의비△활동비는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교육부는 우선 유류비 6039만 원을 회수해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이후의 지급행위를 중단하도록 했다. 세 번째로 소송 86건에 대한 비용 13억여 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로 집행한 것이다. 법인회계는 동원육영회의 이사장이 집행하는 반면 교비회계는 우리학교 총장이 집행하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법인 관련 소송비는 동원육영회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에 교육부는 해당 비용을 교비회계로 전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교육부가 외대어학연구소(이하 외대어연)와 관련해 지적한 부분은 총 3가지다. 외대어연은 동원육영회에서 교육사업기관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다. 교육부는 첫 번째로 외대어연의 유학생 유치 수수료가 비교적 높은 점을 지적했다. 외대어연의 수수료 비율이 타 유학업체보다 10~20%p 높게 책정됨으로써 3년간 8099만 원이 과다 지급됐단 것이다. 두 번째론 BTO로 글로벌홀을 건립해 외대어연이 교육부 허가 없이 20년간 관리운영권을 양도받는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원칙상 운영 수익권이 포함된 관리운영권을 양도하는 등 기본재산의 권리 포기 사안을 다루는 경우엔 필수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우리학교 처장이 총장 허가 없이 영리업무를 겸직한 점이 드러났다. B 처장은 총장 허가 없이 외대어연을 비롯해 외대어연 산하 특수목적법인(SPO) 대표이사를 겸직하며 6547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 더불어 외대어연 사업 명목으로 베트남 여행을 두 차례 다녀온 사실이 공개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교육부는 B 처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논란에 대한 우리학교와 외대어연 입장

지난달 4일, 우리학교는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이하 김 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학내 구성원에게 메일로 전송했다. 해당 입장문에서 김 총장은 △업무추진비 부당집행△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법인부담 소송비 교비회계 집행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 해명하고 향후 조치를 설명했다. 첫 번째로 업무추진비 부당 지출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추가로 해당 문제는 A 보직교수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 아닌 절차상 정산처리 미비로 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건은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됐다. 두 번째로 교육부의 규정에 없는 수당 환수조치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다만 회의비와 활동비는 교육부 지침 이후, 유류비는 교육부 감사 이후 지원을 중단해 교육부의 지적을 부분적으로 수용했다. 한편 법인 관련 소송비에 대해서 “13억여 원 중 12억여 원은 P 전 우리학교 총장(이하 P 전 총장)의 몫이라며 사실상 내용이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이 집행한 금액은 1억여 원으로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이다. 김 총장은 해당 내역에 대해 “성추행 및 갑질로부터 우리학교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법인으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진행한 것이었다”며 “사후 교비회계에 보전했다”고 설명했다. 이 건은 검찰에서 불기소(기소유예) 처리됐다. 이외의 지적사항과 관련해선 회계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국 외대어연 기획홍보팀장(이하 김 팀장)은 외대어연과 관련된 논란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미허가 BTO 사업 추진△미허가 영리업무 종사에 대해 차례로 해명했다. 첫 번째로 외대어연의 특수성으로 인해 유학생 유치 수수료가 비교적 높게 책정됐음을 밝혔다. 외대어연은 우리학교를 위한 유학생 유치 사업을 진행하며 △우리학교 전문 설명회 개최△언어권 별 우리학교 전용 홍보물 제작 및 배포△유학생 한국 생활 정착 지원 등 타 업체에선 할 수 없는 추가 업무를 수행했다. 이에 김 총장도 “6년 전 불과 300여 명이던 유학생이 2000명 선에 도달할 수 있던 데엔 외대어연의 기여가 컸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해 2월부터 외대어연은 유학생 유치 사업을 중단했으며 위 사건은 최근 검찰에서 수사 종결됐다. 두 번째 글로벌홀 관리운영권 양도 문제의 경우 사업 초기 교육부에 사업 허가 서류를 제출했으나 당시 별도로 허가받을 필요는 없단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팀장은 “외대어연이 글로벌홀 건물을 학교에 기부한 뒤 법인이사회 최종 결의를 거쳐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은 것”이라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우리학교 처장 겸직허가 원칙 미준수 건은 “P 전 총장이 참석했던 법인이사회 의결에서 B 처장이 대표가 됐다”며 “P 전 총장의 서면 허가까지 필요한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다만 감사 결과 발표 이전에 겸직 신고를 마쳤음을 언급했다. 이어 베트남 여행은 유학생 유치를 위한 공무였음을 재차 밝혔다. 외대어연 관계자는 “허위사실에 기반을 둔 언론 보도로 외대어연의 신뢰성과 브랜드이미지에 큰 손해를 입었다”며 “학내 구성원들의 소통을 통해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을 마쳤다.

◆우리학교 회계부정에 대한 비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새벽으로부터’ (이하 설캠 총학)와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The 본’ (이하 글캠 총학)은 회계부분 감사 결과가 나온 후 각각 입장문을 발표했다. 설캠 총학은 “지난 몇 년간 우리학교 측은 재정이 어렵단 변명으로 학생들을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 방치했다”며 비판했다. 이에 우리학교 측의 △명백한 사과△해명△향후 조치를 요구했다. 글캠 총학 또한 “예산의 70%가량이 등록금으로 이뤄진 우리학교에서 교비회계의 투명성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된 건 학생 사회에 대한 기만이다”며 설캠 총학과 뜻을 모아 사태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10일, 설캠 총학은 이번 사건에 대해 총장과 동원육영회 이사장에게 상세 소명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다. 또한 “P 전 총장이 명예교수에서 해임되지 않는 한 이 사건은 종결됐다고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17년 5월, 대법원은 P 전 총장에 대해 교비를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벌금 1000만 원형을 확정 지은 바 있다. 언론에 보도된 우리학교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왕희연(아시아 · 인도어 19) 씨는 “언론 보도에서 누락되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교비 남용 문제가 제기된 이상 해명을 뒷받침할만한 상세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계감사 그 이후, 나아가야 할 방향

교육부가 사립대학 회계감사를 실시한 이래로 우리학교를 포함한 적지 않은 사립대학들이 법인 및 교비회계 부분에서 지적받았다. 교육부 감사 이후 각 학교들은 각기 다양한 행보를 보인다. 지난해 첫 감사를 받은 고려대학교(이하 고대)와 고려중앙학원의 경우 지적사항이 22건에 달했다.

이에 고대 측은 총장의 사과문을 게재하고 교육부 권고 수준의 징계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금액 환수 작업△기념품 증정 규정 개정△혁신위원회 설치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모범규준을 정립하는 등의 재발 방지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우리학교는 회계 집행의 투명성 증진을 위해 다방면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 감사위원회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합리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해 다수의 예산안 관련 규정을 수정했다. 김행운(중국 · 중외통 19) 씨는 학교 측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공개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이어 “학교 측은 적극적으로 조치 방안과 계획을 전달하고 학생들은 학내 구성원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C 씨는 “학교에선 회계제도개선위원회를 조직해 심의를 기울이겠단 의지를 보였지만 대다수의 학생이 우리학교 행정에 대한 신뢰를 이미 잃었다”며 외부인을 중심으로 하는 자문회계전담팀 구성을 촉구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교내 행정 비리 사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사라졌다”며 “교내 학생 언론 조직과 총학 측에서 이에 대해 지속적인 언급을 하길 바란다”고 소견을 내비쳤다. 아직 우리학교 측의 상세 소명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학생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시점이다.

*BTO : 민간사업자가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직접 운영하는 방식
**유류비 : 등유, 휘발유 따위의 기름 종류를 사는 데 드는 비용
***포괄적 위임 : 법률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행정 기관에 입법권을 위임하는 행위

지적건명	지적내용	처분
[교비회계(13건)]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내부품의 없이 식대, 골프장 이용료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 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	경징계(1명), 경고(3명), 통보
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	△교무위원△교직원△학과장에게 규정에 없는 △유류비△활동비△회의비 지급	경고(23명), 시정, 통보
법인부담 비용 교비회계 집행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소송비를 교비회계에서 집행	경징계(2명), 시정
이외 10건		
[법인회계(5건)]		
유학생 유치 수수료 과다 지급	타 유학업체보다 외대어연에 유치 수수료 비율 높게 책정	경징계(1명), 경고(3명), 통보
미허가 BTO 사업 추진	교육부 허가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글로벌홀 관리운영권 양도	경고(4명), 통보
미허가 영리업무 종사	·B 처장 총장 허가 없이 영리업무 겸직 및 사업 명목으로 베트남 여행 ·교수 6명 총장 허가 없이 영리업무 겸직	경징계(1명), 경고(6명)
이외 2건		

▲교육부 회계감사 결과

우리학교 양캠퍼스 총학생회장단을 만나다

지난해 치러진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 모두 총학생회장단이 당선됐다. 서울캠퍼스에선 1년만에 ‘새벽으로부터’ 총학생회가 탄생했다. 글로벌캠퍼스에선 쉽지 않은 선거과정을 통해 ‘The 본’ 총학생회

가 당선됐다. 이처럼 총학생회 체제로 전환된 만큼 양 캠퍼스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우리학교 양 캠퍼스 총학생회장단과 얘기를 나눠봤다.

◆총학생회를 만나다

서울캠퍼스 ‘새벽으로부터’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새벽으로부터’

Q1. 지난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총학생회 체제로 바뀌게 돼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지난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였다가 1년만에 제54대 총학생회가 들어서게 돼 감회가 새롭고 책임감도 막중히 느껴집니다. 많은 재학생이 총학생회가 구성됨으로써 학생의 의견이 학교에 잘 전달될 수 있던 기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대에 부응해 선거를 통해 약속드렸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2. 당선 후 최우선으로 진행한 공약은 무엇인가요?

선거 기간에 계속 강조했듯이 총장선출권 쟁취를 최우선으로 두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회의에서도 가장 첫 번째 안건으로 다루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매주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당선 후 △교수회관△연구동△본관에 성명문과 피켓 부착도 진행했습니다. 추후에 열릴 전체교수 회의에선 총장선출제도 개선위원회가 발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Q3. 지난달 ‘새벽으로부터’ 공식 홈페이지가 개설됐습니다. 새로운 시도인데 개설목적과 운영계획은 무엇인가요?

저희는 소통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식적 · 즉각적 소통창구를 개설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제53대 총학생회에서 SNS계정을 통해서만 공지사항이 전달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SNS를 이용하지 않는 재학생의 접근성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청원 · 제안 게시판입니다. 현재도 많은 학생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이러한 글을 확인하는 즉시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중입니다. 또한 홈페이지 매뉴얼을 보시면 △새벽으로부터 공약△총학생회 회칙△총학생회 세칙을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운위 회의록도 매번 올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나 학생총회에서만 공개됐던 총학생회 사업이나 행사 관련 영수증을 온라인에서도 볼 수 있는 ‘재정체널’을 도입했습니다.

Q4. 동대문구 소재 대학 합동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총선이 다음 달 20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얼마 전 이와 관련해 동대문구 소재 3개 대학인 △우리학교△경희대△서울시립대가 총학생회장단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각 대학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보여 후보자 토론회와 공청회를 요청하려 합니다. 현재 이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중이며 추후 지역구 후보자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학별로 상이한 △상황△현황△문제점을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Q5. 앞으로의 활동계획이나 총학생회로서 목표는 무엇인가요?

1년 동안 공약을 이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 해에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약은 총장선출권 쟁취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학사일정 변동도 많고 학생회 사업이 취소 · 연기되고 있어 많이 아쉬워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보완할 수 있도록 총학생회가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The 본’

글로벌캠퍼스 ‘The 본’

Q1. 쉽지 않은 선거과정을 거쳐 당선됐는데 어떠신가요?

쉽지 않았던 만큼 더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선 당시엔 △설렘 △책임감△감사함△죄송함 등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개인이 후보자에 대한 믿음과 학생사회에 자신의 의견을 전달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표현해주신 의견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며 총학생회의 방향성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현재는 총학생회장으로서 많은 업무를 수행하며 이 자리의 막중한 무게감에 대해 더욱 알아가고 있습니다.

Q2. 재수강 학점 제한 폐지에 관한 공약이 있습니다. 일각에선 학점 제한 폐지 시 무분별한 재수강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있을까요?

재회가 우려한 문제점 중 가장 대두되는 것 또한 학점 인플레이션입니다. 학교차원에서도 이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수강 학점 제한을 폐지하되 수여학점을 최대 B+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마지막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했을 때 대부분의 확운위원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내놓은 방안 중 하나는 18학점까진 최대 학점을 AQ, 이후 학점에 대해선 B+로 제한을 두는 방안입니다. 재수강 학점 제한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재수강 제한 학점을 늘리는 대안 등을 논의 중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원어 회화 수업에 대한 절대평가와 학점 포기제도 등에 대해 중운위 및 확운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사제도협의회에서 학사제도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Q3. 공약인 ‘기업에서 만나는 외대동문’ 프로그램과 총동문회에서 진행하는 ‘동문멘토링’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계획과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총동문회 멘토링 시스템도 충분히 의미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학생이 주도하기보단 총동문회 주도로 기획되기에 재학생의 요구사항을 확실하게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재학생이 직접적으로 원하는 멘토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에서 만나는 외대동문’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현재는 우선 총동문회에 소속되지 않은 우리학교 동문에 대한 총학생회 차원의 만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기업에 종사하는 동문에 대한 파악과 이에 따른 연락이 진행됐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해당 공약 진행에 있어 차질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후의 계획은 학생인재개발처와 협업해 더 많은 기업의 동문을 찾아나서는 것입니다.

Q4. 방학 중 ‘모교방문단’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했는데 우리 학교 홍보대사 새로미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으며 모교방문단의 향후 방향은 무엇인가요?

다양한 △단과대학△학과△학부에 속해 있는 재학생의 홍보가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모교방문단의 현실감 있는 홍보와 프로그램이 학우들의 애교심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반면 새로미의 경우 전반적인 학교 홍보와 의견 등을 담당합니다. 이처럼 새로미와 모교방문단의 구성 및 기획의도는 상이합니다. 하지만 학교 홍보란 취지엔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 생각해 향후 홍보 방향성에 대해 함께 소통하고 싶습니다. 모교방문단에 대한 기획서를 바탕으로 학교와 논의 하며 예산 및 일정을 거의 최종단계까지 확정지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의사△지역△기획안에 대한 피드백 조사를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200개가 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설문참여 인원 중 약 99%의 학생들이 참여의사를 밝혔고 다른 피드백에 대해선 취합중입니다. 피드백이 완벽하게 취합된 뒤 이에 대해 학교와 최종적으로 논의 할 예정입니다.

Q5. 앞으로의 계획이나 총학생회로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재학생이 학교의 주체로 누려야 할 권리를 다지는 것이 궁극적 목표입니다. 이 목표가 이뤄져야 비로소 학우들의 행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목표달성을 통해 재학생들이 우리학교의 진정한 구성원으로서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를 위한 첫걸음이 ‘총장 선출제도 개선’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 해에 진행될 총장선거 전까지 ‘총장선출방식 개선위원회’를 발족해 △학교△교수△학생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 합니다. 그러나 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와 관련된 회의 및 논의 일정이 기약 없이 연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재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학사일정 진행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을 현명하게 해쳐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총학생회에 대한 기대

양 캠퍼스 총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 또한 크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에 대해 최지원(아시아 · 이란어 19)씨는 “학생을 대표해 학교와 소통하는 것이 총학생회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방학동안 총학생회의 행보는 신뢰감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임기 동안 학교와 학생의 중간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길 바란다”며 총학생회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에 대해 김나연(통번역 · 영어 19)씨는 “학생대표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재학생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반영해 학교와 학생 사이의 의견 조율에 힘쓰는 학생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견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를 강타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달 19일부터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 이번 달 5일 기준 5천여 명을 넘어섰다. 이에 우리나라는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격상시키고 국민의 청결과 위생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3월 개학·개강을 미루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 우리학교는 비상대



▲우리학교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코로나19 대응조치

◆코로나19란 무엇인가?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일종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 중 사람이 감염될 수 있는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6종이다. 이 중 4종은 감기 증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며 나머지 2종은 폐렴의 증상을 보이는 메르스(MERS) 코로나바이러스와 사스(SARS) 코로나바이러스다. 코로나19의 정식 명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며 이름의 숫자 '19'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병된 2019년을 의미한다.

감염 경로는 비말*접촉이다. 코로나19 감염자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했을 때 공기 중으로 날아간 비말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눈△코△입 등을 만질 때 점막을 통해 전염된다. 현재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병의 증상에 따라 처치하는 대증치료가 시행되고 있다. 한편 이번 달 4일, 한국화학연구원 신종 바이러스 융합 연구단은 기존에 알려진 사스와 메르스 중화항체**가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될 가능성이 있음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용 항체 및 백신 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처 현황

지난달 23일, 정부는 감염병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감염병 위기단계 매뉴얼에 따르면 심각단계에선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전례 없이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것은 신천지 예배로 인한 집단감염의 영향이 크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달 5일 0시 기준, 대구시민 중 4,3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 중 69.6%(3,013명)가 신천지대구교회와 관련됐다. 31번 확진자가 신천지 교인으로 밝혀져 신천지 신도에 대한 접촉자 조사 과정 중 무더기로 추가 확진자가 발견된 것이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천지 교회 본부에 대한 행정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신천지 교인이 동선과 접촉자를 숨기고 거짓말하는 등 코로나19 접촉자 조사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여 조사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발생 현황은 이번 달 5일 0시 기준 △누적 검사 140,775건△확진환자 5,766명△사망자 35명이다. 이에 4일 오후 10시를 기준으로 95개 국가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발 입국자 특별 조치는 △우리나라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우리나라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 금지△격리소검역 강화 권고 사항 발표 조치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주한 외교단을 상대로 과도한 입국 제한 조치 자체를 당부했지만 한국발 입국을 금지·제한하는 나라는 늘어나는 추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를 실천하라고 당부했다. 개인 위생수칙은 △흐르는 물에 비누를 자주 씻기△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등이다. 이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가능한 모든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폐쇄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각 기관·기업엔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택배 근무를 권고했으며 집 안에서 △충분한 휴식△적절한 운동△균형 잡힌 식생활△위생수칙 준수△주거적 환기를 실천하라고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외출을 삼가며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3~4일간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엔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관할 보건소 문의△선별진료소 방문이 우선이다.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땐 감염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보단 자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교육부의 중국 유학생 대처 현황

앞서 교육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중 유학생 상호 출·입국 자제 권고 합의 사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확인한 미입국 중국 유학생은 3만 8천여 명이다. 특히 이 중 입국 일정이 확인되지 않은 인원은 1만 9천여 명에 달했다. 이에 교육부는 해당 유학생들이 중국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 등의 학사 제도를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 이외에 비자발급 지연으로 입국이 어려운 학생에겐 휴학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이미 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에 대해선 14일간 등교를 금지했다. 해당 기간 전국 모든 대학은 1일 1회 이상 유선 또는 방문 모니터링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의심증상자로서 보건당국에 의해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자가격리 대상자가 됐으나 여건이 안 되는 경우△불가피한 사유로 거주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에 대비해 전국적으로 임시거주시설을 확보했다. 반면에 무증상 입국자는 자가 또는 기숙사에서 거주한다.

이번 해 2월 25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42억 원의 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됐다. 해당 비용은 유학생 관리를 위한 현장의 부족한 인력 확보와 방역 물품을 국고로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여기엔 △현장 인력 2,376명에 대한 인건비△이들에게 지급할 방역용품△기숙사 방역 비용이 편성됐다.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기숙사 내 선별진료소의 모습

◆우리학교 총학생회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처 현황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설캠총학)는 현재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를 '코로나19 체계적 대응을 위한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생 TF팀' (이하 설캠 학생 TF)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김나현(서양

어·프랑스어 15)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이하 김 회장)은 "학교 본부에서 비대위를 구성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TF팀을 꾸리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이후로 비대위가 열리지 않고 있어 우리학교의 각 부서는 사실상 개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 이에 설캠 TF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에



▲우리학교 국제학사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의 모습

서 우리학교 학생에게 빠르게 공지를 전달하고 학교 측에 필요한 요구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김 회장이 전한 설캠 학생 TF의 업무는 크게 4가지다. △국내외/타대학 동향 파악△학내일정 및 방역체계 관련 정보 공지△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학생 입장에서 논의△가이드라인 제작이 이에 해당한다. 김 회장은 "학교가 논의 과정에서 계속 학생의 의견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학교 코로나19 비대위가 처음 발족했을 당시 설캠총학 측에서 학생대표자의 회의 참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마찰이 빚어진 바 있다.

설캠 학생 TF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사 일정이 변동될 경우 이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학생지원팀과 이에 대해 논의한다. 김

회장은 "신입생 영어진단평가가 신입생 수강신청 뒤로 연기되며 학우들의 교양 외국어 과목 수강에 불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캠 학생 TF가 이에 대해 학교 측에 문제제기를 해 해결됐음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개강 직후 2주간 진행될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온라인 강의△온라인 증원 신청△수강 변경 기간 중의 온라인 질의응답과 관련해 학생들의

, 과연 우리는 안전한가?

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통해 이 사태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서울·글로벌 캠퍼스 총학생회도 학생들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이례적인 상황을 직면한 가운데 코로나19가 무엇인지 또 이와 관련해 △정부△교육부△양 캠퍼스 총학생회의 입장은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자.



권익을 지키기 위해 매일 학생지원팀과 회의를 하고 있다”며 “TF팀은 개강 후에도 해체하지 않고 단위별로 학우들의 피드백을 수렴해 학교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우리학교 설캠프총학은 학생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국대학생네트워크(이하 전대넷)와 공조해 관련 정부 부처와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부와 면담을 해 원격 수업 센터 설립과 유 장관의 우리학교 방문이 이뤄졌다. 김 회장은 “지금 같은 시기엔 학우들이 불편한 점을 즉각적으로 전달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이하 글캠프총학)는 설캠프총학과 달리 따로 TF팀을 꾸리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박장원(자연·화학 17)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장(이하 박 회장)은 “총학생회가 이미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재 체제로도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중운위·총사생회와 공조해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글캠프총학은 대응 전반 감독△중운위는 학내 구성원의 구체적 의견 수집△총사생회는 기숙사 관련 논의 담당으로 역할이 분담돼 있다.

한편 이번 달 4일부터 양 캠퍼스는 함께 코로나19 기부사업을 진행했다. 박 회장은 “이와 같은 일부 사업은 담당 TF팀을 따로 결성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글캠프총학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글캠프총학은 학교 측에 교내 마스크 구비를 요청했고 업체와 논의까지 이뤄졌지만 단가·물량 합의의 실패로 무산됐다. 학사 일정 변동과 관련해선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측에 전달했다. △중강 연기 반대△보충수업의 활성화△보충수업의 규정화가 이에 해당한다. 더불어 “현재는 학교의 코로나19 사태 대응 및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조사 중이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학생의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할 예정이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글캠프총학은 입학식이 취소됨에 따라 개강 후 입학 축하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또한 신입생 OT 취소로 인해 신입생들이 학교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선 카드 뉴스 ‘댄선선배’ 시리즈와 영상 콘텐츠를 SNS에 업로드함으로써 대응하고 있다. 또한 박 회장은 “개강 후에도 발열체크나 방역을 통해 최대한의 방역을 이어갈 것이다”며 “사태가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개강 추가연기△온라인 원격강의 질 보완·기간 확대△등록금·기숙사 비용 감축 관련 대응을 위한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회장은 학우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더 안전하고 확실한 대안을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우리학교 학생들의 간담회



▲지난달 18일 유 장관이 우리학교에서 가진 간담회

지난달 18일, 유 장관이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에 방문했다. 유 장관은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이하 김 총장)을 비롯한 여러 학교 관계자와 학생을 만나 코로나19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후엔 국제학사에서 코로나19 대처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들었으며 직접 건물 내부를 살펴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



▲이번 달 5일 양캠프 총학생회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기부 증서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본관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와 손세정제

석한 김 회장은 “정부가 학생들과 소통하려는 태도를 보여줘 감사하다”며 “외국인 학생도 모두 우리학교의 구성원인 만큼 서로 원활히 소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인 유학생인 최강(상경·경제) 대학원생은 “중국인 유학생을 ‘우리 학생’이라고 얘기하는 정부와 학교 측의 태도에 감동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자율격리를 해야 하는 유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머물 곳이 마땅치 않다”고 학교 측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 학생이 느끼는 심적 부담에 대해 강조하며 △마스크·소독제와 같은 물적 지원△방역과 관련한 인적 지원△정부 차원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우리학교 각 부처 대응에 대한 학생의 의견은 다양했다. 이서영(사회·미디어 19)씨는 늦은 일정변경 공지로 인해 입은 피해를 지적했다. 특히 “집을 구해야 하는 자취생들이 큰 피해를 봤고 전산실·열람실 등의 폐쇄 여부를 고작 몇 시간 전에 알려주는 바람에 헛걸음하거나 집을 꺼내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하지만 중국인 유학생을 철저히 격리하는 모습이나 매일 보건실에서 코로나19의 동향을 보내주는 것 등은 잘하고 있다”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한 학우는 “최근에도 몇 차례나 외부인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을 학교에서 마주친 적이 있다”며 외부인 출입금지 조치의 철저한 운영을 촉구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개강일	3.2(월)	3.16(월)	2주 연기
수강신청변경	3.2(월) ~ 3.6(금)	3.16(월) ~ 3.20(금)	2주 연기
원격수업		3.16(월) ~ 3.27(금)	
중간시험	4.21(화) ~ 4.27(화)	5.6(수) ~ 5.12(화)	2주 연기
기말시험	6.15(월) ~ 6.19(금)	6.22(월) ~ 6.26(금)	1주 연기
총강일	6.19(금)	6.26(금)	1주 연기
성적 열람 및 정정	6.29(월) ~ 7.3(금)	7.6(월) ~ 7.10(금)	1주 연기

▲이번 달 2일 우리학교 학사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학사일정 변동사항

◆ 우리학교 학사일정변동과 대처 현황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학교는 △신입생 입학식△신입생 신체검사△신입생 수련회 등을 취소했다. 이뿐만 아니라 신입생 수강신청을 이번 달 9일로 연기해 신입생 영어진단평가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실시했다. 또한 개강 이후 2주간의 원격 수업 실시를 공지했다. 우리학교 교무처가 올린 공지 사항에 따르면 원격 수업은 △e-Class에 음성 강의 및 자료 업로드△강의 동영상 ‘유튜브’ 업로드 후 e-Class에 링크 게시△실시간 원격 강의의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특히 실시간 원격 강의의 경우 교수 재량에 따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강의 계획서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우리학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비대위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국제입학관리팀은 인천·김포공항에 부스를 설치해 유학생의 ‘공항-캠퍼스 수송’을 지원한다. 탑승 전 유학생들에게 마스크·손소독제를 지급하고 자율격리 및 예방수칙을 안내한다. 공항-캠퍼스 간 운행은 각 캠퍼스별 1일 3회 이상 이뤄진다. 캠퍼스 인근 자취지역에서 하차하는 경우 14일간 자율격리를 끝내고 학교에 출입할 수 있다. 외국인유학생종합지원센터는 콜센터를 운영해 최근 중국방문 경험 보유 학생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콜센터엔 중국어 가능 요원 10명과 전담 직원 1명이 배치됐고 중국인 유학생과 중국을 방문한 학생을 대상으로 1일 2회 △전화 연락△발열 체크△자율격리 점검을 한다.

현재 서울캠퍼스의 경우 건물별 체온 측정과 외부인 출입제한을 시행하고 있으며 오후 4시 이후엔 모든 건물을 폐쇄한다. △도서관△식당△피트니스 센터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과 강의실 대여는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글로벌캠퍼스는 정문에 검역소를 설치해 출입하는 인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은 물론 학사 일정이 모두 연기되며 신입생을 포함한 우리학교 학생의 불편함이 가중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사태가 진정되고 학내 일정이 본 궤도를 찾을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영화 ‘기생충’ 관광코스 논란, 촬영지 관광코스 개발의 흑과 백

지난해 영화 ‘기생충’이 칸 국제영화제의 황금종려상을 거머쥔 데 이어 이번 해 아카데미 시상식 4개 부문(△국제영화상△각본상△감독상△작품상)에서 수상했다. 기생충은 빈부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주제로 해 전 세계의 공감을 끌어냈다. 이에 서울시는 기생충의 촬영지 중 일부를 관광코스로 개발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가뵈야 할 서울’ 소개란엔 기생

충 관광코스가 등록돼있다. 한편 서울시의 이런 결정에 대한 대중의 의견은 상반된다. 가난을 상품화할 수 있다 부정적 반응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긍정적 반응이 엇갈린 것이다. 이처럼 논란이 거센 가운데 기생충 촬영지 관광코스와 촬영지 개발의 흑과 백을 알아보자.

◆기생충 촬영지를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서울시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기생충 촬영지 중 서울에 있는 몇몇 장소를 묶어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에 ‘기생충 촬영지 탐방코스’를 게재했다. △주인공 기우 친구로부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은 마포구 ‘돼지쌀슈퍼’ △기우가 박 사장 집으로 가는 장면을 촬영한 마포구 ‘기택 동네 계단’ △기택의 가족이 아르바이트하던 동작구 ‘스카이피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장소들은 촬영용으로 지어진 세트가 아닌 실제 장소란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촬영지 탐방코스는 홈페이지 게재 후 조회 수 6만을 돌파하며 대중의 관심을 모았다. 이어 지난달 13일, 서울시는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의 영화 팬, 영화 비평가 등과 함께하는 팸투어도 기획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생충 촬영지 탐방코스를 통해 한국 영화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한류 도시 서울의 매력과 품격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더불어 “제2의 기생충과 같은 한류 콘텐츠 발굴 및 기획에 더 많은 관광객 유치가 힘을 예정이다”며 관광객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계획을 밝혔다.

◆기생충 촬영지 관광의 흑과 백

한편 기생충 촬영지를 관광코스로 만드는 것에 대해 논란이 거세다. 기생충 촬영지 관광은 가난을 전시할 뿐이란 흑과 관광객에 의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란 흑으로 입장이 나뉜다. 지난 달 13일 진행된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이 하 오 대변인은 기생충 촬영지 관광코스 개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오 대변인은 “주민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돈을 버는 관광 상품 개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시가 소개하기 전에도 영화 팬들 사이에선 일명 ‘성지순례’처럼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다”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주민들의 불편함은 여전하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민 이 모 씨는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와 사진을 찍어 정신이 없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런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에 기생충 관광코스가 거주지임을 알리는 주의문을 덧붙이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했다.

한편 촬영지가 있는 아현동 주민들은 가난한 동네로 낙인찍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주민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우려했던 빈민촌으로 낙인 찍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생충 관광코스로 인해 지역 재개발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존재했다. 돼지쌀슈퍼와 기택 동네 계단이 있는 아현동 699단지 일대는 2000년대 재개발 계획 수립 이후 지금까지 지 재개발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다. 주민 양 모 씨는 “이 동네 사람들은

모두 재개발만 기다리고 있는데 구청이 관광 단지라고 선포해 버리면 우린 어떡하느냐”고 우려를 표했다.

반대로 기생충 촬영지 관광코스 지정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살아났단 긍정적 반응도 존재한다. 기생충 촬영지 관광코스 중 한 곳인 스카이피자가 관광코스 지정 이후 매출이 급증한 것이다. 현재 이곳은 저녁이 되기도 전에 재료가 떨어지는 등 긍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 이어 지난달 13일 주봉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기생충의 서울 내 주요 촬영지는 국



▲기생충 관광코스 중 하나인 돼지쌀슈퍼의 모습 (출처: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내뿐 아니라 외국 팬들도 찾는 성지순례 코스가 됐을 정도로 신드롬이 자 한류 관광의 중심지 그 자체다”며 기생충 촬영지를 통해 한류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음을 강조했다.

◆촬영지 관광코스 개발의 다른 사례들

영화나 드라마의 촬영지를 관광코스로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한 다른 사례도 많다. 그중 영화 ‘국제시장’의 촬영지 ‘꽃분이네’가 대표적이다. 꽃분이네는 국제시장의 주 촬영지로서 영화의 흥행 이후 관광객이 급증했다. 그러자 꽃분이네의 건물주는 재계약 시기에 거액의 관리료를 요구했다. 이에 관광객의 수만 증가했을 뿐 실제 매출은 이어지지 않아 실질적 수익이 없었던 신미란 꽃분이네 운영자는 간판을 내리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부산시에 꽃분이네 관리료 문제를 알리자 부산시가 나서 중재했다. 또한 꽃분이

네 주변 가게들은 몰려든 인파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을 어려워 주말엔 원치 않는 휴업을 해야 했다. 이런 경우는 촬영지 관광코스 개발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대표적 사례다.

반면 촬영지 개발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경우도 있다. 포천시는 한탄강 하늘다리가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의 촬영지로 알려지자 관광객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달 2일 포천시 관계자는 “현재는 코로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관광객이 많진 않지만 사랑의 불시착 방영 이후 관광객 수가 크게 늘어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2’의 배경이 된 포천시 영북면 산천호수의 가족호텔을 찾는 관광객도 증가했다.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막기 위해선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

오버투어리즘이란 지나치게 많다는 뜻의 ‘Over’와 관광을 뜻하는 ‘Tourism’이 결합한 단어다. 이는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관광객이 몰려들어 도시를 점령하고 주민들의 삶을 침범하는 현상을 말한다. 기생충 관광코스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과 심미란 꽃분이네 운영자와 같은 상인들의 피해는 이런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박경옥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버투어리즘 방지 방안으로 방문자 교육 시스템 마련 및 책임관광을 유도하는 관광문화 구축을 제시하기도 했다. 오버투어리즘을 방지하기 위해선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촬영지를 방문할 땐 큰 소음을 내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기념 촬영 시엔 주민들의 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돼지쌀슈퍼나 꽃분이네와 같은 매장에 방문할 땐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7년 JTBC 예능 ‘효리네민박’은 가수 이효리·이상순 부부(이 하이 씨 부부)의 실제 사택을 배경으로 촬영했다. 이 방송을 통해 이 씨 부부는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았지만 방영 이후 거주지가 관광지화돼 피해를 보았다. 자택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무단 침입을 시도한 관광객이 늘어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이 씨 부부는 이사를 결정해야 했다. 이 같이 관광객의 부족한 시민의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피해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민의식 제고와 더불어 이를 뒷받쳐줄 제도적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이현지 기자 100hyunzi@hufs.ac.kr



이상문학상 수상 거부, 창작자의 저작권에 대한 공정한 계약이 요구될 때

이번 해 2월, 김금희 작가(이하 김 작가)는 ‘제44회 이상문학상’ 우수상 수상을 거부했다. 김 작가는 SNS를 통해 “전달받은 계약서에 수상 단편의 저작권을 3년간 양도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수정 요구를 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게재를 못 하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김 작가의 해당 선언 이후, 많은 작가가 이에 동참하면서 작

가 개인의 수상 거부사건은 출판사와 작가 간의 불공정 계약 문제로 불거졌다. 작가들을 분노하게 만든 출판사의 저작권 양도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최철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만나 해당 사건의 갈등 원인과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얘기를 나눠봤다.

최철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Q1. 저작권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저작권이란 △시△소설△음악△영화 등과 같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권자가 갖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저작인격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이 속합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경제적 권리로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배포권△대여권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처럼 저작권은 복잡한 성격의 다양한 권리를 포괄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Q1-2. 저작권의 역사와 유래를 알고 싶습니다.

저작물에 대한 인식은 15세기에 출판인쇄술의 발명으로 문서의 대량 복제가 가능해지면서 태동했습니다. 그러나 초기엔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가 아닌 출판권자의 보호와 통제를 위해 만들어져 현대적 저작권이라는 권리 개념과는 다른 맥락을 가졌습니다. 이후 1710년에 저작권 법인 영국 앤 여왕법(The Statute of Anne) 이래로 유럽국가들은 각각 자국법을 통해 근대적 의미의 저작권을 보호했습니다. 뒤이어 △1886년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해 체결된 베른협약△1995년 발효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협정)△1996년 WIPO 저작권 조약(WCT) 등이 체결되면서 국제적으로도 보호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Q2.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체계는 어떻게 구축됐나요?

우리나라에서의 저작권 보호는 1908년 대한제국 당시 한국저작권 칙령에서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이후 1957년, 우리나라 정부는 법률 제 432호로 저작권법을 공포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저작물 이용환경의 변화△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86년과 2006년에 전부개정을 시행하는 등 지속해서 관련 법체계의 정비를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세계저작권 협약 가입을 시작으로 △1995년 지적재산권협정△1996년 베른협약△2004년 WIPO 저작권 조약에 연이어 가입하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저작권 보호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Q3. 이번 사건에서 작가와 출판사는 작가의 저작재산권 이용을 두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갈등의 정확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작가의 저작권과 출판사의 출판권이 부딪힌 건가요?

본 사안은 단순히 작가의 저작권과 출판사의 출판권 간에 충돌이라고

볼 순 없습니다. 이는 출판사가 작가의 저작재산권 이용과 관련해 계약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입니다. 출판사의 출판권도 결국은 저작권자가 허락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건 관련보도에 따르면 출판사가 제시한 몇몇 조항이 갈등을 빚었습니다. 수상작품의 저작권을 3년간 양도해야 한단 것과 작품을 표제작으로도 쓸 수 없고 다른 단행본에 수록할 수도 없단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배포권 등 다양한 권리를 포함하는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s)입니다. 본 사안에선 출판사가 △복제권△공연권△배포권△대여권 등 대부분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도록 계약서에 규정함으로써 과도하게 저작권을 가져가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고자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해당 계약의 목적이 수상작품에 대해 출판사가 배타적으로 출판하기 위함이라면 저작권 양도보다 출판권 설정의 형태로 계약이 진행됐어야 합니다. 출판의 권리를 의미하는 출판권은 저작재산권의 일부로서 저작물을 인쇄해 발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는 저작권과 양립 불가능한 권리가 아니며 이 갈등 역시 저작재산권을 어떠한 형태의 계약하느냐의 문제입니다.

Q4. 이상문학상뿐만 아니라 대다수 문학상 출판사는 ‘저작권 3년 이상의 양도를 제도화’해 시행했습니다. 작가들은 이를 두고 불공정 계약이라 비판했는데, 불공정 계약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인가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출판사가 개별 저작재산권에 대한 명시 없이 포괄적으로 저작권 양도를 출판계약서에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출판사가 서적 출간에 필요로 하는 것보다 과도하게 저작권을 가져가고,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적 저작권 양도계약이 이뤄진다면 출판사에 지나치게 많은 이익이 귀속됩니다. 이러한 사례로 2011년에 시작된 백희나 그림작가의 ‘구름빵’ 저작권 소송을 들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자인 작가가 저작물의 시장유통을 통제함으로써 경제적 대가를 얻는 수단입니다. 작가와 출판사는 저작재산권을 활용하기 위한 협력적 관계가 돼야 합니다. 사실 모든 저작재산권 계약이 작가에게만 불리하고 출판사에 유리한 계약은 아닙니다. 출판사와 작가가 저작물의 성격에 따라 △계약자유 원칙에 의해△대등한 위치에서△양자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는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의 저명작가와 국내 출판사 간의 계약은 작가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곤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명한 일부 작가를 제외한 작가들, 그중 특히 신인 작가들이 출판사와 대등한 지위를 갖지 못한 채 계약을 맺게 될 때 발생합니다. 즉, 불공정한 계약은 출판사의 우월한 지위에 의해 창작자인 저작권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내용이 체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Q5. 출판사와 작가의 관계처럼 갑을관계로 인해 불공정 계약을 맺게 되곤 하는데요.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법적 안전망이 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집, 단행본을 발행하는 상위 출판사가 사용하는 저작권 양도계약서 및 설정계약서에 대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라는 조처를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조치에서 공정위는 계약을 체결할 때 저작물의 이차적 사용에 대한 처리를 출판사에 전부 위임하도록 한 조항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즉, 저작물의 이차적 사용에 대한 권리가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명시하란 것입니다. 또한 저작권자가 분리 양도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에 대해 개별적으로 위임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별도의 명시적인 특약을 통해 선택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게 함으로써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양도가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저작권자인 작가와 출판사 간에 사용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출판계에 사용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작가와 출판사 간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공정한 계약이 맺어질 수 있도록 작성된 것입니다. 표준계약서의 사용이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자는 이를 출판사가 제시한 계약서와 비교함으로써 어떠한 내용이 불리하지 판단하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Q6. 위의 사례와 같이 만약 저작권과 관련한 불공정 계약이 체결됐을 때 개인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창작자인 개인의 입장에서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계약 체결 전에 계약서의 내용을 잘 검토하고△앞서 언급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비교 및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개인 창작자는 저작권에 대한 전문성이 제한적입니다. 이에 정부 기관이 제공하는 저작권 관련 정보를 잘 활용하고 창작자를 지원하는 관련 단체나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Q7. 저작권법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저작권법은 창작자인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촉진해 이용자로서의 공중의 이익도 보호하고자 합니다. 저작물이 활발히 창작 및 이용되기 위해선 관련한 법 재정비와 함께 △개인△기관△사업자가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돼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과 정보화 기기의 급격한 발전으로 저작물의 형태는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작물의 △창작자△사업자△이용자 모두의 균형적 이해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상우 기자 99sangwoo@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20학년도 후기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구분	원서접수	전형일시	합격자 발표	등록기간(예치금)
특별전형	2020. 4. 1(수) ~ 4. 7(화)	4.25(토) 10:00	5. 7(목) 14:00	5.11(월)~ 5.15(금)
일반전형	2020. 5. 7(목) ~ 5. 13(수)	6. 6(토) 10:00	6. 18(목) 14:00	6.22(월)~ 6.26(금)

2. 지원자격

가. 특별전형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 국내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0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인 자로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2) 박사 : 국내의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0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인 자로 석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5(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나. 일반전형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0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인 자

2) 박사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0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인 자

*** 참고)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차이**

- 지원자격상에 평점 평균 제한이 있는 점이 다르며 기타사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 특별전형은 지원자격상에 일정한 평점 평균 제한이 있으며, 일반전형은 평점 평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시기적으로 특별전형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 일반전형을 실시합니다.

3. 모집학과

석사과정 50개 학과, 박사과정 45개 학과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4. 접수방법 :

·STEP 1 - 대학원 홈페이지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및 구비서류 제출(우편, 방문 등)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접수와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함.

5.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면접)

6. 전형방법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7. 기타사항

가. 다양한 교내·외 장학금 혜택

나. 우수박사학위논문 연구비 지원

다. 전문연구요원 제도 운영

라. 기타 본교 도서관 및 시설 이용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www.hufs.ac.kr/grs 및 모집요강 참조

8.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1팀(일반대학원)

TEL. 02-2173-2386 FAX. 02-2173-3369

(우)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외대학보는 우리학교 역사의 초고

학창 시절부터 내 꿈은 기자였다. 사실 진짜 꿈이었다기보다 생활기록부 '장래 희망' 칸을 채우기 위한 단어에 가까웠다. 입시를 준비하면서도 "왜 기자가 되고 싶은가"란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럴듯하게 답하곤 했지만 이는 외워둔 예상 답변에 불과했다. 그렇게 대학생이 된 후에도 꿈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선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학보에 지원해 그동안 '표면상' 꿈이었던 기자의 삶을 실제로 경험해보고자 했다. 처음엔 스스로를 기자로 소개하는 게 쑥스러웠다. '학생 기자도 엄연히 기자다'란 말을 속으로 되뇌면서도 자기 소개할 때 말끝을 흐리곤 했다. 그러나 이내 취재를 하며 기자인 스스로가 익숙해지고 책임감도 따라 커지기 시작했다. 취재 과정에서 새로운 감정을 느끼기도 했다. 한 취재원이 객관적인 시선에서 입장을 전해주길 반복해서 당부했다. 그 순간 긴장감이 땀뚝하며 내가 진짜 기자가 됐음을 새삼 깨달았다. 그렇게 외대학보를 시작했고 표면상 꿈은 내면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영화 '더 포스트'에서 주인공은 뉴스를 '역사의 초고'로 정의했다. 오늘날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잘 때까지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세상이다. 포털 사이트에서 궁금한 정보를 검색하고 유튜브나 SNS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한다. 이처럼 우리 많은 정보에 둘러싸여 있다. 그러나 주의 깊게 보지 않는다면 우리 곁에 있던 정보는 급세 중요성을 잃는다. 그런 중요성을 부여하는 게 뉴스, 즉 기사라고 생각한다. 많은 이슈 중 소수의 이슈만이 기사화되며 주목받기 때문이다. 학보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본다. 우리학교의 다양한 이슈 중 중요한 내용을 골라 기사화한다. 핵심은 우리학교에 대해서 그 어떤 언론보다 깊이 있게 다룬단 점이다. 이 점에서 학보는 우리학교 역사의 초고라고 생각한다.

이번 기획 기사를 쓰며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지 취재했다. 그 과정에서 학보는 매우 유익한 데이터였다. 이처럼 기자들의 열정적인 취재로 완성된 기사들은 우리학교의 객관적인 자료로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내가 기사를 쓰는 것도 우리학교 역사의 한 부분을 기록하는 것이라 여기게 됐다. 학보 기자가 아니었다면 교육부 회계감사 결과를 봤을 때 고개를 내저을 뿐 따로 정보를 찾아보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비로소 직접 취재하며 다양한 입장을 접하고 사건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점에서 학보는 우리학교 사건의 단편적인 부분을 입체적으로 바꾸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외대학보 기자들 모두 우리학교 역사를 기록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므로 외대학보를 통해 우리학교 역사를 함께하는 교내 구성원들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



조현수 기자

SF로 윤리를 들여다보기 [정세랑 작가의 '목소리를 드릴게요'를 읽고]

다양한 SF 세계관 안에서 단편소설 모음집 '목소리를 드릴게요'의 화자들은 각자가 지킬 수 있는 윤리에 대해 고민한다. <11분의 1>의 주인공인 유경은 동아리 선배들의 '식물인간이 된 기준 선배 살리기 프로젝트'에 생명 윤리란 질문을 던지고 <리셋>은 거대한 지령이들이 지구에 해가 된 인류 문명을 갈아엎는 것을 보여주며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하게 한다. 이어 <리를 베이비 블루 필>은 좋은 취지로 시작한 한 알의 약이 윤리를 잊은 세계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풀어낸다. 표제작인 <목소리를 드릴게요> 역시 한 사람이 자신의 유해함을 깨닫고 공동체 윤리에 대해 고민하며 이를 스스로 제거하는 내용이다. 이 소설들은 약 10년 동안 작가가 쓴 SF 소설을 모은 것으로 그가 윤리에 대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느낄 수 있다.

독자는 이 소설들을 읽으며 여러 윤리 중 특히 여성성과 자연에 대한 부분을 상기하게 된다. 현재 지구란 공동체에 사는 우린 장애인, 여성 등의 소수자를 차별하고 환경을 경각심 없이 파괴한다.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은 부족하며 똑같은 시간의 노동을 하더라도 여성의 임금도 남성의 임금보다 적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는 37.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또한 사람들은 15분의 식사에 4백년 넘게 썩지 않을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한다. 필요 이상의 육류 소비를 위해 운영되는 공장식 축산은 △소△돼지△닭 등의 생명을 쉽게 바이러스에 노출시켜 살처분의 대상이 되게 한다. 실제

로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퍼지자 바이러스 확산 방지 차원에서 살처분된 돼지는 수만 마리에 이른다. 이런 21세기의 생활방식을 23세기 사람들이 보고 역겨워할까 두렵단 작가의 말은 우리의 생활방식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리셋>에서 작가는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인류에 대해 "무엇보다 멸종이 끔찍했다"며 "사람들은 눈에 못생기거나 보이지 않는 종이 죽는 것엔 개뿔 관심도 없다"고 지적한다. 이는 더 이상의 무관심을 막기 위해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다.

이렇듯 작가는 △식물인간의 재생△거대 지령이의 침공△잊히지 않는 기억을 만드는 신약△초능력자와 같은 SF를 배경으로 윤리에 관해 얘기한다. 일각에선 SF에서까지 PC 함*을 추구해야 하며 불평할 수 있다. 그들에게 작가는 <11분의 1>의 주인공 유경의 입을 빌려 "그렇게 원칙도 윤리도 없이 막살다가 망한다?"며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지구가 끝난 거다"고 따끔하게 지적한다. 소설집 '목소리를 드릴게요'를 읽고 △자신△소수자△지구의 관계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유의미한 고민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존재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PC 함: politically correct, 정치적으로 옳은가 고려하는 것

이현지 기자 100hyunzi@hufs.ac.kr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일제강점기 8호실, 꺼지지 않은 그녀들의 항거

영화 <항거: 유관순이야기>는 3.1절 100주년을 기념해 제작됐다. 이 영화는 1919년 3월 1일 서울 종로에서 시작된 만세운동 이후 충남 병천에서의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을 주도한 '유관순'이 서대문 감옥 8호실에 갇혀 보낸 1년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일제강점기 당시 3.1 운동을 주도한 유관순은 옥살이 중 일본에 저항하기 위해 감옥에 갇힌 독립운동가들을 단합시킨다. 수상함을 느낀 일본인 보안과장은 주동자가 '유관순'임을 알아내고 모진 고문을 가한다. 이후 걸으며 유관순은 일본에 순종하는 척 하나 몰래 또 다른 독립운동을 준비한다. 독립운동은 감옥을 넘어 저항거리로 퍼져 나가고 유관순은 다시 무자비한 고문을 당하다 결국 출소 이틀 전 사망한다.

영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흑백의 장면들이 주를 이룬다는 점이다. 영화를 만든 조민호 감독(이하 조감독)은 의도적으로 옥중에서의 장면을 흑백으로 표현했다. 화려한 색깔을 떨어낸 흑백 영상은 주변 환경보다 인물 자체에 더욱 주목시키는 효과를 준다. 조감독은 "고문 장면 등의 보기 힘든 상황을 관객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보다 흑백으로 표현해 상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많았다. 그러나 유관순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는 △1948년△1959년△1974년 단 3편뿐이고 여성 연대를 그린 영화 역시 많지 않다. 이 영화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옥사 안 유관순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의 이야기도 다뤘다. 조감독은 △유관순 열사의 이화학당 선배이자 개성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한 권

애라 열사△수원에서 기생들을 이끌고 만세운동을 주도한 김항화 열사△임신 상태로 입소한 임명에 열사 등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등장시켰다. 이렇듯 영화는 독립운동에 여성 연대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행해지던 당시 재소자들은 일본인 간수에게 성희롱과 끔찍한 고문을 당한다.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8호실 여성들은 감옥에서 아이를 낳은 동료들을 돕기 위해 추운 겨울 언 기저귀를 뭍으로 녹여주는 따뜻함을 보여준다.

조감독은 유관순이란 실제 인물과 여성 연대를 스크린에 담기 위해 7년이란 긴 시간 동안 고증과 구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으로 타 영화보다 짜임새 있는 극의 흐름을 보여줬고 완성도를 높였다. 그리고 김새벽, 정하담 등의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 역시 극의 몰입도를 높이며 영화적인 재미를 더한다. 온갖 압박 속에서도 독립의 열망을 꺼뜨리지 않았던 그들의 항거가 있었기에 오늘날이 존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얼마 전 3.1절은 101주년을 맞았다. 영화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착각하지만 의외로 잘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일제강점기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다. 이 영화를 보며 여성 독립운동가의 업적과 유관순 열사의 삶에 대해 되돌아보길 바란다.

이서미 기자 99seomi@hufs.ac.kr



외대학보 독자위원회를 모집합니다

2020년 1학기 동안 외대학보를 비평해 주실 독자위원을 모집합니다.

- ◆활동내역 2020년 1학기 외대학보 1040~1045호 비평 후 비평문 작성 (총 5회, 개인 당 2회)
- ◆모집단위 서울캠퍼스 3명/ 글로벌캠퍼스 3명
- ◆모집기간 3월 15일(일)까지
- ◆지원방법 문자메시지 혹은 외대학보 페이스북 메시지로 이름, 캠퍼스, 학과, 학번 제출
- ◆지원자격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 등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우리학교 구성원
- ◆활동혜택
 - 비평문에 대한 소정의 원고료 지급
 - 독자위원회 토론 시 경비 지원
- ◆문의 서울캠퍼스 김미정 기자 010-9830-7078 글로벌캠퍼스 김연수 기자 010-7107-6046

독자위원이 써 주신 비평문은 매 호 외대학보에 실립니다. 학보도 꼼꼼히 읽고 사람들과 만나 토론하고 싶은 지식인을 환영합니다.



빈의자

국 · 부장 고정칼럼

정의 힘

새해를 맞이하는 제아의 종이 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위기를 알리는 경고음이 울렸다. 바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전 세계를 강타한 것이다.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기승으로 우리나라의 확진자는 8일 기준 7000명을 훌쩍 넘겼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매일 관련 정보와 국내 발생 현황을 보고하며 마스크 수급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잇단 확진자 발생으로 다수 국가가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했다. 우리나라를 상대로 문을 걸어 잠그는 국가가 점차 많아지면서 사회적 분위기도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회 곳곳에선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유명 연예인이 거액의 기부금을 기탁하는가 하면 대기업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학교 양캠퍼스 총학생회도 기부금을 모아 희망 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임대인들은 임대료를 인하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실제로 남대문시장에 위치한 2천여 곳의 점포가 3개월간 임대료의 20%를 할인받는 혜택을 얻었

다. 이런 움직임에 정부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게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은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정은 느끼어 일어나는 마음 혹은 친근함을 느끼는 마음이란 뜻이다. 이는 '사랑'과는 미묘하게 다르다. '내 가족 보단' '우리가족', '내 나라 보단' '우리나라'로 대신한 표현이 빈번한 까닭도 정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런 미묘한 감정인 정을 표현할 언어는 한국어 이외엔 없다. 앞서 언급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자국민의 자세는 우리나라의 민족성인 정을 잘 보여줬다. 국제적인 위기에도 나눈 온정이 얼어붙은 사회의 분위기를 녹이길 기대한다.

김나현 편집장 98nahyuuuny@hufs.ac.kr



사설

코로나-19를 잘 이겨나가며, 선업(善業)을 만들어 가자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당정은 당정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걱정이 많다. 국가적으로는 개교 이래로 겪은 비상 상황들 가운데 하나지만, 세계적인 국제공황을 가진 교통과 빈번한 국제교류 여건 속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갑작스런 비상 상황이다. 코로나-19는 감기 바이러스 일종인데, 아직 백신이나 약을 개발하지 못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스럽게 여긴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에 중국 다음으로 많은 감염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신속히 대응하며, 미국이나 독일 그리고 호주 언론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듯이, 수준 높은 의료체제와 의료인들의 헌신으로 잘 대처하고 있다고 한다. 새로운 비대면 검사시스템과 기술 그리고 질병관리 대응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은 질병 유무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공개하는 체계도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높은 국민의식으로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는 잘 극복하면서 이겨내리라고 생각한다.

우리 학교도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보직 교수들과 선생님들은 매일 같이 회의한다. 2월에 있었어야 될 졸업식을 취소 또는 여름으로 연기하고, 2월말 또는 3월 초에 해야 할 입학식도 4월 이후에 소단위 축하행사로 대신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개강도 2주 연기하고, 2주간은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강사 선생님들은 갑작스런 온라인 강의 준비로 모두 바쁘다. 학교는 개교 이래로 겪어보지 못한 비상상황이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시행착오가 없지 않다. 우리 학생들과 교강사 선생님들과 직원 선생님들도 모두 어려운 가운데 건강을 잘 지키시고, 이상황을 잘 극복하시길 기원한다.

이런 비상 시국에도 3.1절이 지나갔다. 세계의 모범이 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면서, 이런 나라가 되도록 꿈꾸며 희생한 순국선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월1일(일)이 1919년 3.1만세운동 101주년(週年)이었다. 나는 지난 일요일에 순국선열 가운데 유관순(柳寬順) 열사(1902-1920)를 생각하며 보냈다. 그는 1902년 충남 천안군 동면 용두리(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용두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1916년 감리교 공주교구의 미국인 여자 선교사 엘리스 사프의 추천으로 감리교단이 서울에 설립한 이화학당 보통과 3학년에 편입한다. 1919년 보통과를 수료하고 고등과에 재학 중, 3.1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던 중, 3월10일 학생들의 만세운동을 차단하기 위해 임시휴교령이 반포됐다. 그는 서울에서의 독립만세운동 활동의 한계를 느끼고, 고향으로 내려가 만세운동을 확산시키기로 다짐한다. 3월13일 그는 이화학당에 재학 중이던 사촌언니 유예도와 고향인 충남 병천(井川)으로 돌아간다. 그는 뜻을 같이 하는 여러 분들과 용두리 지렁이골에 총본부를 두고 아우내 장터에서 4월1일 만세운동을 주동한다. 그 외 많은 이야기는 너무 슬퍼서 생략한다.

유관순 열사는 서대문형무소에서 혹독한 고문과 그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이듬해인 1920년 결국 타살됐다. 유관순 열사의 짧고 뜨거운 삶은 영화를 통해서 또 그를 기억하는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남았고, 그의 만세소리는 그를 기억하는 이들의 가슴에서 지금도 울리는 듯하다. 그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의 만세소리는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울림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의 뜨겁고 짧은 삶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들은 그에 게 행한 용서할 수 없는 일본인들과 그들의 앞잡이 역할을 한 반민족 친일 행위자들의 일들을 사이면서, 사유를 깊이고 넓히면서, 그들을 어디까지 인내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불교에서는 모든 행위는 그것이 사유행위든 언어행위든 물리행위든 모두 그 내면에 업으로 온전히 쌓인다고 한다. 이 업 이론 측면에서 볼 때, 삶은 두 가지다. 즉 하나는 업(業)을 만드는 삶이다. 다른 하나는 이 업을 지우는 삶이다. 말은 구업(口業)을 만들고, 행위는 행업(行業)을 만들고, 생각은 의업(意業)을 만들며, 그 삶의 자국을 내면에는 누군가의 기억에든 남긴다. 그리고 그것은 원인이 되어 또 다른 과보를 만들고, 그 과보는 또 다른 업을 만들고, 그 업이 다시 원인이 되면서 영원히 인과의 고리를 만들며 순환한다. 따라서 수행자는 이 업을 짓지 않으려고 하거나 혹은 이 업을 녹이려고 하며 수행을 해 이것이 성공하면 그 인과의 고리를 끊고 열반에 이른다. 일반인이려면, 가능하면 좋은 업을 쌓으려고 한다. 나쁜 업을 쌓는 것은 자신과 남에게 모두 좋지 않다. 또 사회적으로는 좋지 않은 공업(共業)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우리 삶의 흔적과 자국이 선업(善業)이어서 작품이 되느냐 아니냐, 혹은 이걸 모두 지우느냐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 김원명(철학과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심자말풀이

②			②							①
						④				
						④				
③				②						
							①			
		⑤								

- 가로**
- 영화 '기생충' 〇〇〇〇 논란, 촬영지 〇〇〇〇 개발의 흑과 백 (8면 참조)
 - 우리학교 양캠퍼스 〇〇〇〇〇〇을 만나다 (5면 참조)
 - 〇〇〇〇수상 거부, 창작자의 저작권에 대한 공정한 계약이 요구될 때 (9면 참조)
 - 김은경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00 부원장으로 임명돼 (2면 참조)
 - 유은혜 〇〇〇〇〇 우리학교 코로나19 대응 상황 점검 나서 (2면 참조)

- 세로**
-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견된 '신종 〇〇〇〇〇〇' (이하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를 강타했다. (6면 참조)
 - 교육부 〇〇〇〇결과(3면 참조)
 -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〇〇〇〇특성화 대학으로 선정 (1면 참조)
 - 이번 해 2월, 〇〇〇작가(이하 김 작가)는 '제44회 이상문학상' 우수상 수상을 거부했다. (9면 참조)
 - 기와와 배고픔에 맞서 싸우는 임형준 UN 세계식량계획 한국〇〇〇〇을 만나다.(12면 참조)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를 누르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세 분에 한하여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드립니다.
지난호 당첨자는 페이스북에서 확인해주세요.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구촌을 읽다(15매)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97didu@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겸 주간 김원명
편집장 김나현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기아와 배고픔에 맞서 싸우는 임형준 UN 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장을 만나다.

전(前) 유엔 세계식량계획 로마본부 아시아 총괄공여관이자 '우리 함께 웃어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행복 나누기'의 저자 임형준(동유럽·루마니아어 90) 동문은 '배고픔'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 UN 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장으로서 기아와 빈곤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그가 걸어온 길을 따라가 보자.

(출처: 연합뉴스)

Q1 대학 시절 임형준 소장님은 어떤 학생이셨는지 궁금합니다.

학창시절엔 별 볼 일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후배님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교수님께 과감히 백지를 제출하고 F도 여럿 받았던 학생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란 두 가지 화두를 중심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방황을 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좁은 우리나라를 벗어나 넓은 세상을 보자 마음으로 3년 반 동안 80여 개국을 다녔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는데 8년 넘게 걸렸지만, 세계의 현실을 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며 제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깨달았습니다.

Q2 루마니아어과에 진학한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학교를 졸업한 것이 어떤 도움이 됐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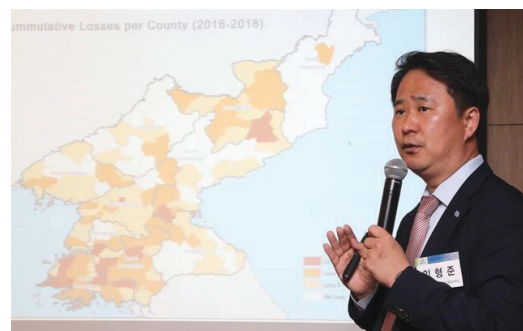
언어를 좋아해 외국어를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중 동유럽 언어가 유망하던 선배의 달콤한 유혹에 루마니아어과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특히 루마니아어 학습이라든가 뿌리인 스페인어스폴어스포르투갈어스이탈리아어를 배우는 데 유용하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루마니아어뿐만 아니라 라틴계열 5개 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학교의 국제적인 분위기는 제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덕분에 저는 원하던 세계 일주도 할 수 있었고 항상 도전하는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Q3 지금 일하고 계신 UN 세계식량계획(이하 WFP)이란 곳은 어떤 일을 하나요?

한마디로 배고픈 사람을 돕는 곳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8억 2천만 명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어떻게 버틸지 고민하고 밤엔 굶주림에 배를 움켜잡습니다. 그 수는 세계 인구의 약 1/9에 달합니다. 안타깝게도 기

아인구는 2014년 이후 계속 늘고 있습니다. WFP는 기아와 빈곤의 최전방에서 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자립을 돕는 다양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WFP는 1964년부터 1984년까지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배고프고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 제로 형거(Zero-Hunger)*를 성취한 가구이기도 합니다.



▲ 임형준 UN 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장
(출처: 네이버)

Q4 WFP에서 활동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현장에서 했던 일이 기억에 많이 납니다. 서아프리카의 기니 비사우란 곳에서 일했는데 △쿠데타△내전△대기근△난민 위기 등 수많은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말 한마디△글 한 줄△하나의 행동이 모여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친 사람을 도울 수 있었던 점이 매우 보람차고 뿌듯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무소에선 국내 정부나 민간 기업 등과의 협력으로 재원을 마련해 전 세계 30개국 이상을 돕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600만 명을 넘게 도왔어요. 내 앞에 배고픔으로 쓰러진 한 아이를 먹이는 것도 큰 기쁨이지만 이를 직업으로 삼으며 600만 명 이상을 도울 수 있단 것은 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WFP는 우리나라의 배고픈 사람만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젠 세계 곳곳

곳에 태극기가 붉은 식량 포대가 전달됩니다. 이 모습이 무척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Q5 기아가 발생하는 곳이 분쟁지역, 전쟁 국가 등이란 점을 미뤄봤을 때 활동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기니 비사우에서 정부 사람을 만나려고 했더니 출근을 하지 않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월급이 11개월이나 밀렸기 때문입니다. 나라 전체에 기름이 떨어져 차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집엔 전기와 물이 나오지 않는 등 우리나라에선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때때로 식량을 나르는 트럭이 로켓포 공격을 받고 직원의 안전이 위협받기도 합니다. 온두라스에 있을 땐 제가 탄 차가 60미터 절벽에서 굴러 떨어져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또한 현장 일의 특성상 한 달에 절반 이상은 집을 비워 아내가 무척이나 힘들어했어 요. 그러나 이런 노력 덕분에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고 세상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고 있단 데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Q6 WFP에서 '제로 형거'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지난해부터 '제로 웨이스트, 제로 형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지구상에 생산되는 식량의 1/3은 버려집니다. 어느 국가든 굶고 있는데 선진국은 식탁 위에서, 개도국은 △생산△저장△수송 과정에서 막대한 식량을 낭비합니다. 이러한 처리 비용이 연 750조가 넘으며 이 돈이면 20억 명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아 문제는 당장 해결이 가능하단 겁니다. 이런 현실에 착안해 만든 캠페인이 '제로 웨이스트, 제로 형거'입니다. 이는 '개인은 먹을 만큼만 먹어 웰빙에서 다이어트까지 성공하고 식당은 음식쓰레기를 대폭 줄여 그 처리 비용 일부를 WFP에 기부' 하는 1석 4조의 효과를 가집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최대의 식품기업인 씨제이(CJ)

와 시범사업을 했는데 실제 음식물쓰레기가 30% 이상 줄었습니다. 또한 준비했던 제로 형거 메뉴가 모두 팔리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해는 더 많은 곳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세계적인 모델이 돼 실제 세계 기아 퇴치를 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Q7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20대에 세계 일주하며 가슴 아팠던 부분은 '인간의 고난(human suffering)'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처절한 기아△빈곤△전쟁의 참화 등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기아 없는 세상을 포함해 인간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일에 계속 기여하고 싶습니다.

Q8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길 꿈꾸는 우리학교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노트에 꿈을 적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엔 터무니없는 꿈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5개 국어 구사△세계 일주△20대에 책 출간△세계 최고의 학교에서 유학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현실이 됐습니다. 남 눈치 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꿈을 △담대하게 꾸고△간절히 원하고△이에 끊임없이 도전할 때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꿈은 나만을 위한 것을 넘어 세상을 위한 큰마음일 때 더욱 가치 있을 것입니다. 많은 후배님들이 'Something bigger than myself(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고민하고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은 먹을 만큼만 먹어 웰빙에서 다이어트까지 성공하고, 식당은 온실가스의 8%를 차지하는 음식쓰레기를 대폭 줄여 일부를 WFP에 기부하는 캠페인

김연수 기자 100yeonsue@hufs.ac.kr



학군사관(ROTC) 모집안내

2020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오늘의 선택
내일의 리더
대한민국
ROTC

지원자격

- 연령 : 임관일 기준(만 20 ~ 27세 이하인 남·여) ※ 재대군인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을 합산함
- 학군 61기 선발(남·여 모두 가능) :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 (5년제 학과 3학년 재학생)
- 학군 62기 선발(남·여 모두 가능) :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 (5년제 학과 2학년 재학생)

지원서 접수 및 모집일정

- 기간 : 2020년 3월 16일 ~ 4월 10일
- 방법 : 인터넷 www.armyofficer.mil.kr [학군사관 모집안내]란 이용
- 일정
 - 1차 필기고사 : 4. 25.(토), 합격자 발표 : 5. 15.(금)
 - 2차 면접평가 : 5. 25.(월) ~ 6. 12.(금), 합격자 발표 : 6. 26.(금)
 - 최종 합격자 발표 : 9. 4.(금)

학군사관 Reserve Officer Training Corp는 대학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ROTC) 대학의 전공학문은 물론 군사지식을 갖추는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문의처 지원대학 학군단

